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성부의 고용인과 의탁인*

이정주**

〈차 례〉

- 머리말
- 분석 대상 자료 개관
- 한성부 호적의 寄口와 雇傭 보유 호주
- 한성부 호적의 기구와 고용의 성격
-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한성부의 호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당시의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을 살펴본 것이다. 호적을 분석한 결과 고용 및 의탁 인구의 숫자가 개별 가호의 경제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인과 의탁인의 분포와 그 사회경제적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 및 상관 계수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고용, 기구, 가택 칸수 간의 비례성을 검토하여, 이들 변수 사이의 비례성과 상관성이 사회적 계층과 경제적 상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밝혀보았다. 그 결과 기구와 고용의 보유 정도는 해당 가호의 경제적 위상을 반영하며, 특히 고용인의 숫자와 기와집의 규모가 거의 정비례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한제국 시기 한성부 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경제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한성부, 광무호적, 신식호적, 한성부 호적, 雇傭, 寄口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23).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1. 머리말

호적은 과거 인구 구조, 가족 관계, 이주 상황, 사회적 지위 변화 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생애와 관련한 주요한 기록이어서 종래 역사학과 사회학 연구자들에게 사회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과거 사회의 구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 자료였기에 호적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았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한성부 지역의 호적 역시 당시의 가족과 신분, 그리고 호주제와 여성의 존재 양식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¹⁾ 이 시기의 호적은 1896년 이후의 산물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호적은 ‘신식호적’, ‘광무호적’ 등으로도 불리며, 일정한 양식표에 호구 관련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화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것이었다.²⁾

1) 19세기 말~20세기 초 호적을 이용한 초기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성윤·조은, 「한말의 가족과 신분-한성부 호적 분석」, 『사회와 역사』 50, 1996; 조은, 「유교적 가부장제와 여성호주 가족」, 『한국여성학』 21-2, 2005; 조은·조성윤, 「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 양식-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2004.

2)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호적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의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데이터베이스화된 바 있다. 이후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는데, 그 대표적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현진, 「1906년 漢城府 北署의 居民 樣相과 都市性格-光武10년 漢城府 北署 城內 8坊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1, 2013; 「근대 초기 도시가족 구성에서 보이는 여성의 존재와 경계-光武 7년 漢城府 戶籍에 기재된 여성호주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0, 2013; 「1903년 漢城府民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2015; 「근대 초기 도시가족과 兒童 인식의 패러다임-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鄉土서울』 91, 2015; 2017 「1900년대 近代 都市의 주변과 거주민의 삶-光武 7년(1903) 漢城府 城外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4, 2017; 「근대 초기 漢城府 商人의 계층적 존재양상과 가족 특성-1903·1906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3, 2019; 「1903~1906년 漢城府 軍人 계층의 거주 특성과 성격-光武 7~10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110, 2022; 이정선, 「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 구성-1906년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2, 2016; 이윤희, 「19세기 말~20세기 초 신호적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고찰」, 『규장각』 61,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22; 이정주, 「1901년 작성 北靑 戶籍과 北靑郡民 소요 사건」, 『한국사학보』 53, 2013; 「광무 연간 북한 지역 여성의 호적 기재 양상」, 『역사민속학』 51, 2016; 「19세기 서울 지역의 생원과 진사구한말 호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3, 2021; 임학성, 「19

자연히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호적에 관해서 많은 주목이 있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호적을 활용한 연구들은 주로 호주와 가족 구성, 그리고 사회 계층구조를 밝히는 데 집중되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호적 연구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은 한성부였다. 일단 한성부의 호적 데이터가 방대하고, 조선시대 이래 한성부가 호적을 관리하는 주요 부서였기에 기록의 충실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앞선 연구로 인하여 구한말 가족과 호주의 성격, 호적 작성과 관리의 지역적 편차, 상인·군인·순검·첩·아동 등 사회 구성원의 존재 양태 등이 규명되었다.

구한말의 호적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이전 시기 즉 조선 후기 호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구, 계층, 여성, 직업 등 사회적 측면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19세기 말~20세기 초 호적에는 당시 가호의 경제적 상황 유추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호적 내에 주택의 크기, 종류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고용인의 숫자까지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주택과 고용인, 그리고 가족 외의 피부양인까지 검토한다면, 비록 한성부 지역에 국한한 것이지만 당시인들의 경제적 상태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성부 호적에 포함된 고용인과 기탁인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³⁾ 당대 가호의 경제 상황, 지역적 경제력의 편차, 고용 관계, 의탁 인구의 성격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세기 중엽 仁川 永宗島 주민의 通婚 양상 - “1867년 永宗鎭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 『한국학연구』 6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20세기 초 황해도 甕津郡 島嶼住民의 생활 양태-1905년도 甕津郡 南面 昌麟島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차인배, 「광무년간 한성부 호적을 통해 본 근대 경찰관부의 실태-경무청의 직인 및 수입관을 중심으로, 『郷土서술』 91, 2015; 「광무년간 한성부호적을 통해 본 순검의 거주와 생활 양상, 『역사민속학』 51, 2016.

3) 본고에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성부 호적의 ‘雇傭’과 ‘寄口’ 관련 정보를 분석하려 한다. 이 시기 인천, 개성, 경기도 광주군의 ‘기구’와 ‘고용’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에서 분석한 바 있다. 吳星, 「19世紀末 仁川港의 戶와 戶主-光武戶籍의 檢討, 『歷史學報』 131, 역사학회, 1991; 「韓末 開城地方의 戶의 構成 實態-인구와 가족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23, 성곡학술문화재단, 1992; 吳星, 「韓末 京畿道地方의 戶主構成의 樣相에 關한 一試論-특히 姓貫 分布와 關連하여, 『歷史學報』 152, 역사학회, 1996.

2. 분석 대상 자료 개관

조선시대 호적은 3년마다 개편하였는데, 호적을 변경할 때는 各戶에서 戶口單子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 호적에는 호주와 호주의 4조를 기재하였는데, 고려시대 4조의 4조까지 기재하던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간략해진 것이었다. 이외에도 호적에는 작성 시기, 주소, 본관, 연령, 가족 구성 및 노비에 관한 사항까지 담겼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호적도 기본적으로는 조선 초 이래의 호적을 답습한 것이었다. 다만 갑오경장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어 노비 관련 정보가 없어지고, 가택 정보가 추가된 정도였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호적 양식은 시대적 변화를 담고 있었다. 노비 대신 고용인과 의탁하여 살고 있는 인구수가 기재되었고, 차후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가택의 종류와 크기가 담겨있는 것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작성된 호적은 상당한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었다. 구한말 내부 경무국에서 펴낸 『顧問警察小誌』에서 고문 경찰의 호구조사 행적을 정리한 바에 따르면,⁴⁾ 이 시기의 “호구 조사는 허무맹랑하여 믿을 수 없다. 관찰사 이하 수령들이 각각 관할 호수를 은닉한 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그 나머지 호구에서 징수한 호세를 자신들의 소득으로 삼았다.”고 비판할 정도였던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호구수로 현재 전하는 것은 『한국호구표』를 제외하면, 『관보』 및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등 신문 기사 뿐이다. 하지만 광무 11년의 『한국호구표』에 기록된 인구수와 융희 4년 『관보』에 실린 수치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한성부 호구수만 하더라도 약 2만 호, 인구수에 있어서 68,646명의 차이가 있고, 전국 호구수의 경우 34만 5천 호, 인구수에 있어 273만 6천명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⁵⁾

4) 『고문경찰소지』, 203~204쪽. 이 기록은 丸山高문 보좌관이었던 岩井敬太郎이 편찬하였다.

5) 孫禎睦,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신편 한국사』 44, 국사편찬위원회, 2000, 277~280쪽 참조. 도표 역시 위의 연구에서 재인용하였다.

[표 1] 대한제국 시기 전국의 호구

연도	한성부		전국		근거
	戶	口	戶	口	
광무 4년(1900)	42,454	196,898	1,397,630	5,608,151	『황성신문』, 광무 5년 1월 10일
광무 5년(1901)	42,463	193,606	1,409,344	5,713,244	『황성신문』, 광무 6년 1월 24일
광무 6년(1902)	42,936	197,214	1,405,116	5,782,860	『황성신문』, 광무 7년 1월 8·9일
					『제국신문』, 광무 6년 12월 29일
광무 7년(1903)	42,821	194,659	1,418,530	5,891,595	『황성신문』, 광무 8년 1월 13일
광무 8년(1904)	42,730	109,234	1,374,969	5,629,487	『황성신문』, 광무 8년 12월 21일
광무11년(1907)	46,374	199,325	2,333,087	9,781,671	『한국호구표』(5월 20일 조사)
융희 3년(1909)					
본국인	56,129	233,094	2,633,028	12,363,404	『관보』, 융희 4년 7월 6일
일본인	9,921	32,528	42,535	143,045	
기타 외국인	701	2,349	2,826	11,791	
합계	66,751	267,971	2,678,389	12,518,240	

이처럼 대한제국 시기 호적 자료는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대한제국 시기 호적 가운데서도 한성부의 것은 그나마 상태가 좋은 편이다. 여러 가지 사료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성부 호적의 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성부 호적이 당시인의 성명, 가족 관계, 사회적 지위, 거주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기 사회의 구조와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변화, 사회 계층 간 상호 작용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의 절대적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대한제국 정부에서 작성한 한성부의 호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를 종합하면, 현존하는 대한제국 시기 한성부 호적 숫자는 총 35종이며, 12,422호, 64,666명이었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현존하는 대한제국기 한성부 호적과 호구수

번호	호적명	호수	인구수
1	建陽1年漢城府北署陽德坊戶籍	165	966
2	建陽元年漢城府北署延禧坊戶籍	252	1,117
3	光武10年漢城府北署嘉會坊戶籍	355	2,002
4	光武10年漢城府北署觀光坊戶籍	612	3,270
5	光武10年漢城府北署廣化坊戶籍	254	1,244
6	光武10年漢城府北署順化坊戶籍	1,394	6,897
7	光武10年漢城府北署安國坊戶籍	177	849
8	光武10年漢城府北署陽德坊戶籍	165	996
9	光武10年漢城府北署鎮長坊戶籍	400	1,974
10	光武10年漢城府北署通義坊戶籍	36	177
11	光武10年漢城府長通坊戶籍	810	5,370
12	光武10年漢城府中署堅平坊戶籍	826	4,612
13	光武10年漢城府中署寬仁坊戶籍	424	2,309
14	光武10年漢城府中署瑞麟坊戶籍	213	1,280
15	光武10年漢城府中署壽進坊戶籍	295	1,670
16	光武10年漢城府中署貞善坊戶籍	942	4,822
17	光武10年漢城府中署澄清坊戶籍	233	1,476
18	光武11年漢城府北署俊秀坊戶籍	327	1,569
20	光武7年漢城府南署廣通坊戶籍	441	2,200
21	光武7年漢城府南署大坪坊戶籍	191	1,270
22	光武7年漢城府南署豆毛坊戶籍	444	1,615
23	光武7年漢城府南署會賢坊戶籍	262	1,402
24	光武7年漢城府南署薰陶坊戶籍	790	4,378
25	光武7年漢城府東署蓮花坊戶籍	227	1,207
26	光武7年漢城府北署嘉會坊戶籍	272	1,484
27	光武7年漢城府北署廣化坊戶籍	6	32
28	光武7年漢城府北署常平坊戶籍	192	773
29	光武7年漢城府北署順化坊戶籍	240	1,203

30	光武7年漢城府北署安國坊戶籍	172	856
31	光武7年漢城府北署延恩坊戶籍	81	335
32	光武7年漢城府北署延禧坊戶籍	254	988
33	光武7年漢城府西署盤松坊戶籍	495	2,064
34	光武7年漢城府西署龍山坊戶籍	250	930
35	光武7年漢城府中署堅平坊戶籍	225	1,329
합계		12,422	64,666

3. 한성부 호적의 寄口와 雇傭 보유 호주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호적에는 호주와 동거하는 친속에 대한 정보 외에, 의탁인이라 할 수 있는 ‘寄口’와 고용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雇傭’에 대한 정보가 남녀별로 실려 있다. 분석 대상 지역은 한성부 소속 동서 남북중의 5개 署와 30개 坊이었다. 호적에 수록된 사람은 남자 31,881명, 여자 30,759명으로 도합 62,640명이었다. 이 가운데 고용은 약 13%인 8,150명이었고, 기구는 약 10.4%인 6,532명이었다. 한성부 전체 인구의 23.4%가 고용인과 의탁인이었던 셈이다.

[표 3] 한성부의 지역별 고용과 기구

지역	남자 고용	여자 고용	고용 합계	남자 기구	여자 기구	기구 합계
南署	681	801	1,482	523	445	968
東署	19	23	42	28	27	55
北署	1,220	1,472	2,692	1,275	1,174	2,449
西署	6	8	14	35	33	68
中署	1,862	2,058	3,920	1,465	1,527	2,992
합계	3,788	4,362	8,150	3,326	3,206	6,532

인구 구성으로 보자면 고용인과 의탁인은 전체의 약 1/4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타 지역의 경우 기구의 숫자는 어느 정도 있지만, 고용은 거의 없었다. 도시화된 인천항의 경우 16.2%의 기구와 고용이 있었는데, 기구와 고용인의 숫자와 비중으로 보면 한성부는 다른 지역과 많은 차별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⁶⁾

한성부 호적에 보이는 기구와 고용 항목은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戶口調査規則>이 반포되고, 9월 8일 내부령 제8호로 <戶口調査細則>이 공포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호적 제도의 산물이었다. 새로운 호적 제도에서는 일정한 양식표에 戶主가 호주의 성명과 나이, 직업, 본관, 4조, 동거친속, 가족의 규모와 종류 등을 기입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기구와 고용에 관한 정보까지 담았던 것이다.

[그림 1] 근대 호적의 '戶籍式樣'

기구와 고용은 각각 남녀로 나누어 <戶籍式樣>에 그 숫자를 기록하였으며, 기구와 고용까지 합한 각 호의 남녀 수를 최종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雇傭'이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고, '寄口'란 말 그대로 의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당시 인들이 기구와 고용을 완전하게 구분하여 이해한 것 같지는 않다. 「光武10年漢城府中署堅平坊戶籍」에 의하면 順和宮에는 남자 기구 21명과 여자 기구 54명이 기록되어 있다. 또 「建陽1年漢城府北署陽德坊戶籍」에는 桂洞宮에 남자 기구 14명, 여자 기구 9명, 남자 고용 27명, 여자 고용 33명

6) 오성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기구와 고용의 비율이 인천은 16.2%, 개성은 3.3%였다.

이 기재되어 있다. 순화궁은 현종 사후 후궁 경빈 김씨가 나와 살면서 얻게 된 이름이며, 이후 이윤용의 소유였다.⁷⁾ 계동궁은 觀光坊 桂洞에 있었기 때문에 계동궁이라 불렸으며 당시 은신군의 嗣孫이자 종실인 完林君 李載元의 거처였다. 두 궁은 모두 당시 황실 관련 인물들이 거처였으며 그 규모나 운영 방식이 유사한 곳이었다. 그런데 계동궁의 경우 기구와 고용을 분리하여 기재한 반면, 순화궁은 고용은 1명도 없이 기구만 85명이 있었던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의 폐지와 함께 노비가 호적에 기재되던 관행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전의 노비 신분이었던 존재가 모두 독립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고용’이나 ‘기구’의 형태로 남았을 것이다.

물론 ‘기구’는 고용과 달리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자신의 가정을 떠나 다른 가정에 얹혀사는 개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구는 친척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아나 노인 등이 될 수도 있다. 기구는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여 다른 가정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지인일 수도 있지만, 가사를 돕거나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고용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표 4] 한성부 지역의 고용과 기구의 규모

	고용	비율	기구	호수	비율
-	9,517	76.6%	0	10,123	81.5%
1인	655	5.3%	1	677	5.5%
2인	1,009	8.1%	2	675	5.4%
3인	548	4.4%	3	393	3.2%
4인	352	2.8%	4	255	2.1%
5~10인	315	2.5%	5~10인	264	2.1%
11~20인	18	0.1%	11~20인	27	0.2%
20인 이상	8	0.1%	20인 이상	8	0.1%
전체 戶數	12,422	100.0%		12,422	100.0%

7) 순화궁 터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29인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요정 태화관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이 자리에 태화빌딩과 하나로빌딩이 세워져 있다.

위의 표는 한성부 지역 개별호의 고용과 기구의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고용인 없는 가구가 약 76.6%, 의탁인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약 81.5%였다. 고용과 기구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5인 미만이었다. 그리고 고용과 기구를 각각 20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호는 모두 8개 호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가구는 고용인이나 의탁인 없이 구성되어 있으며, 소수의 가구에서 다수의 고용인 또는 의탁인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인이나 의탁인을 둔 가구는 전체 가구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기서 고용과 기구가 없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대부분의 가호가 자가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대한제국기의 기구와 고용은 갑오개혁 이전에는 대부분 노비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 말기 한성부와 같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일지라도 노비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음도 알 수 있다.

고용을 많이 보유한 호주는 李琦鎔·桂洞宮 이재원(60인), 閔泳徽(35인), 趙東潤(32인), 李載完(31인), 尹用求(27인), 閔泳喆(26인), 閔泳韶(25인) 순이었다. 고용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기용은 정조의 서자 恩信君의 현손이며, 흥선대원군의 伯兄 흥녕군 이창응의 손자이고, 桂洞宮의 嗣孫으로, 고종에게는 5촌 조카였다. 민영휘는 명성황후와의 15촌 조카에 해당하여 촌수는 상대적으로 먼 편이었지만, 여흥 민씨의 대표 인물로 고종의 신임을 받아 요직을 두루 역임한 수구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조동윤 역시 당시 대표적 권세가였던 풍양 조씨 가문 출신으로, 그의 부친인 조영하는 신정왕후의 조카로 고종 즉위를 도와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에 실세였던 인물이다. 이재완 역시 宣祖의 아홉째 서자 慶昌君 李瑋의 9대손이자 증 좌찬성에 추증된 李愼應의 아들로, 1864년 고종의 지시로 흥완군 興完君 李晟應의 양자로 뽑혔던 인물이었다. 민영철 역시 여흥 민씨로 閔益鎬의 아들로, 閔善鎬에게 입양되었던 인물이었다. 민영소 또한 여흥 민씨이며 閔哲鎬의 아들이며, 閔奎鎬에게 입양되었던 인물이다.

고용인을 많이 보유한 인물들은 이기용, 이재완, 이재원 같은 고종의 근친이거나 민영휘, 민영철, 민영소, 조동윤 등 황실의 척족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요직을 역임한 인물들이었다. 예외적인 인물로 윤용구가 있는데, 그 역시 해

평 윤씨 출신으로 부마였던 남녕위 尹宜善의 아들로서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이조판서까지 역임한 인물이었다. 즉 고용인을 20인 이상 보유한 호주는 모두 황실이거나 황실의 인척에 속하는 인물이었던 셈이다.

다음으로 기구를 많이 보유한 호주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구 보유 순위는 順和宮(75인), 金洛汝(74인), 李址鎔(42인), 閔泳徽(26인), 金永振(24인), 朴元根(23인), 李琦鎔(21인), 趙命九(20인)이었다. 순화궁의 소유주인 이윤용은 李完用 형으로서 흥선대원군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 그의 사위가 되었으며, 흥선대원군이 몰락한 이후에는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기도 했다. 이후 고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아관파천에 참여하기도 했고,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제를 만들기도 했던 인물이다. 기구를 많이 보유한 호주 역시 이지용, 이기용 등 종친이거나 민영휘, 조명구 등 척족 관련 인물들이었다. 이처럼 기구 다수 보유자들이 모두 권력자였지만, 예외도 있었다. 기구를 무려 74인이나 두었던 감낙여라는 인물은 상인이었다. 그는 무려 80칸의 기와집을 임대하여 살고 있었던 상인이었다.⁸⁾ 정선방 泥洞에서 80칸의 기와집을 임대하여 살았던 것으로 보아 부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보유한 기구는 실제로 친척, 고아 등 의탁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4. 한성부 호적의 기구와 고용의 성격

앞서 고용과 기구의 보유 호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기구보다는 고용을 많이 보유한 쪽이 보다 권력과 가까웠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기구와 고용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경제적 위상과 관련이 있을까. 호적상 개별 가호의 경제적 우열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지표는 가택의 규모라 할 수 있다. 가택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가호의 경제적 능력이 크기 때문이다.

8) 「光武10年漢城府中署貞善坊戶籍」.

그래서 고용과 기구, 그리고 가택 칸수 합계 사이의 비례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우선 고용, 기구, 가택 규모의 세 변수를 놓고, 다변량 회귀분석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이 분석 방법은 고용 규모와 기구의 규모가 가택 규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고용과 기구의 두 독립 변수가 함께 작용할 때 가택 칸수 합계에 대한 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과 기구의 숫자를 독립 변수로, 가택 칸수 합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다변량 회귀 모델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모델을 설정한 결과 결정계수 값은 약 0.56이었다. 이는 모델이 가택 칸수 합계의 변동성의 약 56%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 모델의 계수는 다음과 같았다. 고용의 계수는 약 4.38이었는데, 이는 고용인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택 칸수가 평균적으로 약 4.38칸 증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구의 계수는 약 1.65에 불과했다. 이 분석을 통해 고용과 기구 모두 가택 칸수의 합계와 비례 관계에 있으며, 특히 고용이 가택 칸수 합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구와 고용이 가택 규모와의 관련성에 대한 또 다른 분석들은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한 방법이다. 여기서 상관 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하는 통계적 수치이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두 변수가 완벽한 선형 관계를 가질 때 1 또는 -1의 값을 가지며, 무관계일 때 0의 값을 가진다. 값이 1에 가까우면 양의 선형 관계, -1에 가까우면 음의 선형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비례성을 살펴본 방식대로, 고용과 기구, 그리고 가택의 규모를 변수로 놓고, 이 세 변수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상관 관계는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1은 완벽한 음의 상관 관계, 0은 상관 관계가 없음, 1은 완벽한 양의 상관 관계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고용과 기구의 상관 계수는 약 0.247로, 약한 양의 상관 관계를 가졌다. 즉 이는 고용인이 증가할 때 기구의 숫자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인의 숫자와 가택 규모의 상관 계수는 약 0.657로, 중간보다 큰 강한 양의 상관 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용인이 증가할수록 가택 칸수 합계가 증가하는 경향이 기구보다 더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구와 가택 규모 사이의 상관계수는 약 0.405로,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여기서 기구가 증가할 때 가택 칸수 합계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고용인의 숫자가 가택 칸수의 규모와 가장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기구와의 상관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비례 관계 분석과 일관되며, 경제력의 규모와 위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고용 지표가 극히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택의 종류와 기구, 고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구한말 한성부 호적에 나타나는 주택은 크게 기와집과 초가집이었다. 먼저 초가집과 기구, 고용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까. 고용과 초가 사이의 상관계수는 약 0.076으로, 매우 약한 양의 선형 관계를 나타냈다. 즉 이 수치는 고용의 증가가 초가의 증가 사이에 큰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구와 초가 사이의 상관계수 역시 약 0.065로 매우 약한 양의 선형 관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고용과 기구의 숫자와 초가의 숫자 사이에는 커다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가의 규모와 고용, 기구의 숫자는 독립적인 관계로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다.

이에 반해 고용과 소유한 기와집의 규모 사이의 상관계수는 약 0.65였다. 이는 두 변수 사이에 강한 양의 선형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유하는 기와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과 가택 칸수 합계 사이의 상관 계수 역시 약 0.65로, 우연하게도 고용과 기와 사이의 상관 수치와 같았다. 주택의 총 규모와 기와의 크기가 고용과 상관성이 높았던 데에는 기와 규모와 초가, 와가를 포함한 총 주택 규모 사이의 상관 계수가 매우 높은 약 0.99였던 데에 기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와집의 비중이 높아지고, 고용인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 계수로 증명되듯이 고용과 와가의 규모, 그리고 가택 칸수 합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와가와 가택 칸수 합계 사이에는 매우 강한 비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표 5] 한성부 지역별 호당 고용인과 기구의 규모

署	坊	호당 평균 고용인수	고용 순위	호당 평균 기구의 수	기구 순위
南署	-	0.79	17	0.51	19
	廣通坊	1.07	7	0.39	23
	大坪坊	1.44	1	0.84	4
	豆毛坊	0.01	32	0.05	33
	會賢坊	1.06	8	1.06	1
	薰陶坊	0.91	14	0.55	15
東署	-	0.19	27	0.24	26
	蓮花坊	0.19	28	0.24	27
北署	-	0.48	20	0.44	22
	嘉會坊	0.95	11	0.72	8
	觀光坊	0.84	16	0.69	10
	廣通坊	0.24	25	0.28	25
	廣化坊	0.32	22	0.53	16
	常平坊	0.01	34	0.05	32
	順化坊	0.31	23	0.36	24
	安國坊	0.91	13	0.58	12
	陽德坊	1.18	5	0.57	13
	延恩坊	0.00	35	0.02	35
	延禧坊	0.03	29	0.06	31
	俊秀坊	0.20	26	0.49	20
	鎮長坊	0.31	24	0.46	21
	通義坊	0.39	21	0.22	28
西署	-	0.02	31	0.09	30
	盤松坊	0.02	30	0.12	29
	龍山坊	0.01	33	0.04	34
中署	-	0.99	10	0.75	6
	堅坪坊	0.88	15	0.79	5
	慶幸坊	0.94	12	0.74	7

	寬仁坊	1.06	9	0.98	2
	瑞麟坊	1.31	2	0.70	9
	壽進坊	1.13	6	0.53	18
	長通坊	1.29	3	0.86	3
	貞善坊	0.61	19	0.68	11
	澄清坊	1.27	4	0.55	14
전체		0.66	18	0.53	17

한성부 지역 고용의 경우 전체 평균은 호당 0.66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중서 0.99명, 남서 0.79명, 북서 0.48명, 동서 0.19명, 서서 0.02명 순이었다. 기구의 경우도 고용과 유사한 지역적 분포를 보였다. 전체 평균은 0.53명인데, 중서 0.75명, 남서 0.51명, 북서 0.44명, 동서 0.24명, 서서 0.09명이었다. 대체로 한성부의 중서와 서서는 호당 기구와 고용이 평균을 웃도는 지역이었고, 북서, 동서, 서서는 평균 이하였다.

한성부의 坊을 기준으로 고용과 기구를 정리한 것이 위의 표이다. 앞서 췌 별로 고용과 기구의 평균을 파악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坊 별로 볼 때, 호당 평균 고용인이 제일 많은 지역은 南署 大坪坊(1.44명)이었다. 평균 고용인수가 1명 이상인 坊은 中署 瑞麟坊(1.31), 中署 長通坊(1.29), 中署 澄清坊(1.27), 北署 陽德坊(1.18), 中署 壽進坊(1.13), 南署 廣通坊(1.07), 南署 會賢坊(1.06), 中署 寬仁坊(1.06)까지 모두 9개 방이었다. 고용인수가 많은 곳은 당연하게 오늘날 서울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호당 평균 기구의 숫자 분포도 고용의 경우와 유사성을 보인다. 기구의 수가 많은 지역은, 南署 會賢坊(1.06), 中署 寬仁坊(0.98), 中署 長通坊(0.86), 南署 大坪坊(0.84), 中署 堅坪坊(0.79) 순으로 나타난다. 약간의 특이점이라면 중서 건평방의 경우 평균 기구수는 전체 가운데 5위였지만, 평균 고용인수는 15위로 다소 편차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건평방의 기구 비율이

높은 것은 순화공에서 부리는 노동자를 고용이 아닌 기구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남자 기구 6명, 여자 기구 8명을 보유한 漢語學校 역시 이들 모두를 고용이 아닌 기구로 처리했다. 한어학교에 기구 14명은 이전의 노비 신분이었을 것이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견평방의 경우 소속된 노동력을 고용이 아닌 기구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 때문에 객관적 경제력에 비해 기구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헌성부 지역에서 고용과 기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어디일까. 우선 고용의 경우, 北署 延恩坊(0.00), 北署 常平坊(0.01), 西署 龍山坊(0.01), 南署 豆毛坊(0.01)이었다. 기구 평균이 적은 지역도 고용의 경우와 비슷했다. 北署 延恩坊(0.00), 西署 龍山坊(0.01), 南署 豆毛坊(0.01), 北署 常平坊(0.01), 北署 延禧坊(0.03) 순이었다. 연은방은 북부 12방 중의 하나로서, 방 안에는 훈창계의 효자동·사기동·신둔, 홍제원계의 내동·외동·답동·백련동, 갈현계의 궁동·좌월동·효경동·박석동, 사계의 노지동·구산동·토정동·대조동, 불광리계의 불광리·박석동·사정동·관동, 말흘산계의 와산동·응암동·골반동·녹현동, 신사동계의 신사동, 역계의 역촌동, 양철리계의 녹현이 있었으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홍제동·홍은동·구산동·역촌동·대조동·신사동 각 일원과 갈현동·불광동·구기동·녹번동·응암동이었다. 모두 현재의 서울특별시 외곽이거나 심지어 경기도 고양시에 속하는 지역인 것이다. 상평방은 연은방보다는 조금 서울의 안쪽에 해당한다. 이곳은 물가를 조절하고 흉년에 기민 구제를 위한 상평창이 있던 데서 방 이름이 유래되었다. 경리청계의 무계동·부암동·백석동·홍지문내동·삼지동·구기동·응암동·왕정평·신영동·남문동, 선혜청계의 평창, 금창계의 중곡, 어창계의 상곡·중곡 등이 있었으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부암동·홍지동·신영동·응암동·구기동·평창동 각 일원에 해당한다. 남서 용산방의 경우, 현재의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에서 용이 머리를 든 것 같아 용산이라 부른 데서 방 이름이 유래하였다. 성 안에는 공덕리계의 염동·홍례동·신동·분장동·한정동·칠목동·울산동·선문동·활인동·대현동, 응리상계·응리중계, 응리하계, 청과일계, 청과이계, 청과삼계, 상사계, 거사계, 동문외계의

동문의, 진휼창계의 진휼창, 신창내계의 신창내, 탄항계의 탄항, 형제정계의 형제동, 도화동계의 외동·내동, 만리창계, 토정리계, 마포계, 신촌리계의 신촌동, 사촌리계의 사촌리가 있었으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마포동·이촌동·토정동 각 일원과 공덕동·신공덕동·염리동·대현동·서계동·청과동1·2·3가·원효로1·2·3·4가·문배동·용문동·신계동·신창동·산천동·청암동·도화동·효창동·도원동 각 일부에 해당하였다. 두모방 역시 한성부의 외곽지역이었다. 한성부 남부 11방 중의 하나로, 동쪽에서 흘러오는 한강과 북쪽에서 흘러오는 증랑천이 합해지는 곳으로, 현재 왕십리, 신당동, 능동, 행당동, 전농동, 면목동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즉 기구와 고용이 거의 없었던 지역은 현재 서울시 외곽, 심지어는 경기도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기구와 고용의 이러한 편차는 당시 지역별 주택의 유형과 크기의 차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주택의 유형과 크기는 당시의 사회적 계층 구조와 경제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였다. 한성부의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주택의 규모가 크고 기와의 비율이 높았다. 기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단순히 교통과 입지가 편한 것 뿐 아니라 가옥의 규모 자체도 컸다. 그리고 수로 城底十里에 해당하는 지역, 특히 한성부의 중심인 경복궁에서 멀수록 초가의 비율이 높았다.⁹⁾ 기구와 고용은 기와의 비율과 정비례하며, 초가의 비율과 반비례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한성부의 호적상의 고용과 기구를 분석하여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알아보았다. 한성부 지역 인구의 약 1/4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컸던 고용인과 의탁인을 통해 개별호의 경제 상태를

9) 이정주, 「19세기 말~20세기 초 호적 자료를 통해 본 한성부의 가택과 그 특성」, 『역사민속학』 65, 2023, 155쪽 참조.

추정하고, 다변량 회귀분석 및 상관 계수 분석으로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조명했다. 이를 통해 한성부 가호의 지역별 경제적 위상과 사회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로 인해 기와집의 비율과 크기, 그리고 가택 규모와 고용인 수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성부 지역에서 고용인 없는 가호가 약 76.6%, 의탁인이 없는 가호가 전체의 약 81.5%였다. 고용과 기구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5인 미만이었으며, 고용과 기구를 각각 20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戶는 8개 호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戶가 가족 위주로 노동을 영위했던 것이다. 고용과 기구를 많이 보유한 이들은 고종의 근친이거나 여흥 민씨, 풍양 조씨 등 황실의 척족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요직을 역임한 인물들이었다.

상관 계수로 볼 때, 고용과 가택 규모의 수치는 약 0.657이었고, 기구와 가택 규모의 수치는 약 0.405로, 가택 규모가 클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고용, 기구와 무엇보다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기와집의 비율과 크기였다. 주택이 기와집이고 규모가 클수록 기구와 고용의 보유도가 함께 높아졌던 것이다. 지역별로 볼 때 기구와 고용이 많은 곳은 서울 중심부였고, 주변부로 갈수록 기구와 고용의 비율이 낮아졌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호적에는 주택의 규모, 종류, 기구와 고용의 보유 여부가 담겼는데 이로써 당시 호적이 개별 호의 경제적 능력을 철저히 파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음도 알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현진, 「1906년 漢城府 北署의 居住 樣相과 都市性格-光武10년 漢城府 北署 城內 8坊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1, 2013.
- _____, 「근대 초기 도시가족 구성에서 보이는 여성의 존재와 경계-光武 7년 漢城府 戶籍에 기재된 여성호주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0, 2013.
- _____, 「1903년 漢城府民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2015.
- _____, 「근대 초기 도시가족과 兒童 인식의 패러다임-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鄉土서술』 91, 2015.
- _____, 2017 「1900년대 近代 都市의 주변과 거주민의 삶-光武 7년(1903) 漢城府 城外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4, 2017.
- _____, 「근대 초기 漢城府 商人의 계층적 존재양상과 가족 특성-1903·1906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3, 2019.
- _____, 「1903-1906년 漢城府 軍人 계층의 거주 특성과 성격-光武 7~10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110, 2022.
- _____, 「19世紀 末 仁川港의 戶와 戶主-光武戶籍의 檢討-, 『歷史學報』 131, 역사학회, 1991.
- _____, 「韓末 開城地方의 戶의 構成 實態-인구와 가옥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23, 성곡학술문화재단, 1992.
- _____, 「韓末 京畿道地方의 戶主構成의 樣相에 關한 一試論-특히 姓貫 分布와 關連하여-, 『歷史學報』 152, 역사학회, 1996.
- 이정선, 「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 구성-1906년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2, 2016.
- 이유진, 「19세기 말~20세기 초 신호적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고찰, 『규장각』 61,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硏究院, 2022.
- 이정주, 「1901년 작성 北靑 戶籍과 北靑郡民 소요 사건, 『한국사학보』 53, 2013.
- _____, 「광무 연간 북한 지역 여성의 호적 기재 양상, 『역사민속학』 51, 2016.
- _____, 「19세기 서울 지역의 생원과 진사-구한말 호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3, 2021.
- _____, 「19세기 말~20세기 초 호적 자료를 통해 본 한성부의 가택과 그 특성, 『역사민속학』 65, 2023.
- 임학성, 「19세기 중엽 仁川 永宗島 주민의 通婚 양상 - “1867년 永宗鎭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 『한국학연구』 6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 _____, 「20세기 초 황해도 甕津郡 島嶼住民의 생활 양태-1905년도 甕津郡 南面 昌麟島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 조성윤·조은, 「한말의 가족과 신분-한성부 호적 분석, 『사회와 역사』 50, 1996.
- 조 은, 「유교적 가부장제와 여성호주 가족, 『한국여성학』 21-2, 2005.
- 조은·조성윤, 「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 양식-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2004.
- 차인배, 「광무년간 한성부 호적을 통해 본 근대 경찰간부의 실태-경무청의 책임 및 주임관을 중심으로, 『鄉土서술』 91, 2015.
- _____, 「광무년간 한성부호적을 통해 본 순검의 거주와 생활 양상, 『역사민속학』 51, 2016.

Employees and Dependents in Hanseongbu from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Lee, Jung-Joo*

This study analyzes the family registries of Hanseongbu from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examining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time.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employees and dependents reflects the economic status of individual households. Multivariate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used to explore the distribution of employees and dependents and their socioeconomic implications. This methodology examined the proportionality and correlation between employment, equipment, and household size, revealing how these variables reflect social class and economic status. It was found that the extent of equipment and employment held mirrors a household's economic standing, with a notable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size of tile-roofed house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diversity of Hanseongbu society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Key words: 漢城府(Hanseongbu), 光武戶籍(Gwangmu Household Register), 近代戶籍(Modern Household Register), 漢城府 戶籍 (Hanseongbu Household Register), 한성부 雇傭(Hanseongbu Employees), 漢城府 寄口(Hanseongbu Dependents).

논문투고일: 2024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7일 ||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16일

* Dankook University